

意志의 齒科人¹⁷ 趙 鏞 起 先生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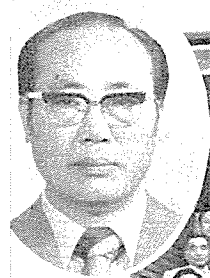
1946年 京城齒科醫師會 總務로 就任한 것이 契機로 財理事에서 다시 總務理事로 계시면서 1952年 軍醫官으로 召되기까지 서울 齒科醫師會의 會務를 맡아 보았다. 特當時 서울 齒科醫師會와 京城齒科醫師會가 分裂狀態에 있을때에는 趙鏞起先生의 奮身이 努力으로 圓滿하게 合併하여 오늘의 빛나는 會員 壹千余名을 헤아리는 大서울齒科醫師會로 成長했다.

6. 25戰亂의 後置症으로 無秩序에 가깝던 大韓齒科醫師會는 趙鏞起 總務의 起用으로 다시 活氣를 되찾았다. 크고 작은 各種行使는 勿論, 會務處理에 東奔西走 해야 다.

意志의 齒科人 趙鏞起先生님은 1961年 第3回 東京亞太會議에는 大學 20名의 會員을 會議에 參加토록하여 國威를 宣揚하였으며 戰后 韓國의 發展의 可能性을 中外에 誇示했다.

大韓齒友會 會長을 2回 連任한 바 있는 意志의 齒科人 趙鏞起先生님은 齒友會 會員의 捐篤한 友誼增進 福祉向上, 學術練磨의 旗幟를 내걸고 會費徹廢, 地方會回總會開催, 學術集단의 隨時 開催, 寫真帖製作등 刮目할 業績을 쌓았다. 지금은 平凡한 開業醫로서 서울市 齒科醫師會 顧問으로 계시며, 大齒會長이 海外에 나갈때는 金浦空港에서 拳會的으로 歡送式을 가져야 된다고 力說하고 계시다.

(關聯記事 631面에)



大韓齒友會 會長 當時 第15回 定期總會 開催地인 狹川 海印寺에서의 記念撮影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 煥 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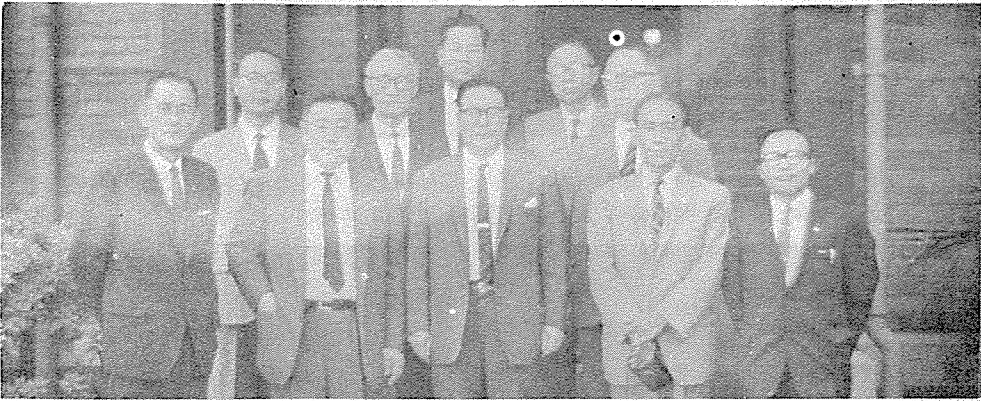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 (73) 0474 · (72) 9712

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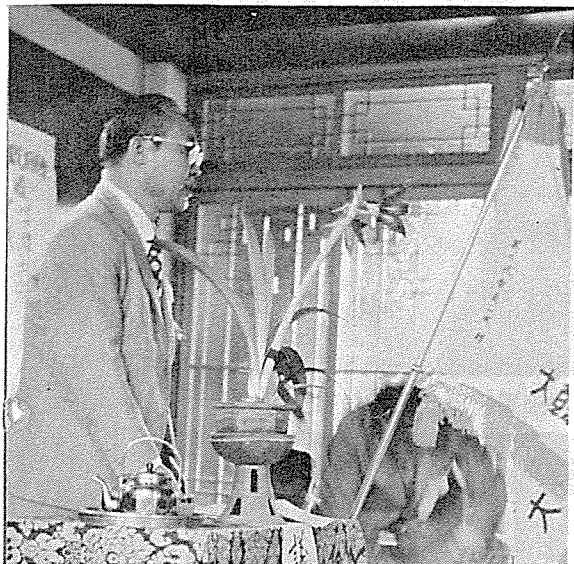


1952年 서齒 総務理事 当時(会長 안 병식) 美顧問團 歡迎宴을 베풀었다. (미장크림)



京 都 名 所 遊 覽 記 念 於 知 恩 院 (1961. 10. 26)

第3回 亞太會議에 參席次 渡日 會議를 마치고 駐日大使館을 訪問했다 (上). 또한 故路 京都에 있는 Shofu의 招請을 받아 名所를 觀光했다. (下)



大韓齒友會 會長을 二回 歷任하면서 會員의 福祉向上에 힘쓴 나머지 會費制度의 廢止, 市道 支部 全回 總會를 開催하여 會員 相互間의 友誼를 돈篤하는데 이바지 했다.



大齒總會 總務理事 時節 當時 會長 韓東燦 會長과 崔曉峯 事務局長과 함께



大韓齒友會 會長 當時 著名人士를 招携하여 時로 學術講演會를 열어 會員의 資質向上에 힘썼